

Basell, UHMW-PE 사업 Polialden에 매각

Basell USA는 UHMW-PE(Ultra-High Molecular Weight Polyethylene) 사업을 Polialden Petroquimica SA에 매각기로 합의했다.

Polialden의 세계 UHMW-PE 사업은 미국 델라웨어주 Wilmington에 설립될 예정인 신규 자회사가 관리할 예정이다. Polialden은 다수의 기업들과 합병돼 Braskem을 결성, 남미 최대의 석유화학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된다.

Basell은 UHMW-PE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미국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북미의 생산능력 과잉에 따라 루이지애나주 Lake Charles 소재 UHMW-PE 플랜트와 PE 4억4000만파운드 플랜트를 2002년 3월말까지 폐쇄할 예정이다.

PP(Polypropylene)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Lake Charles 생산단지의 개보수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생산단지를 간소화하고, 경쟁격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PP 시장에서 장기적인 성공에 필수적인 저비용 공급기업이 되는데 전념할 계획이다.

Basell은 비용절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30개월에 걸쳐 Lake Charles 생산단지에서 2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정리해 40명의 계약직 근로자를 포함해 총 고용인 수를 334명으로 줄였다.

<Chemical Daily News 2002/ 02/ 25>